

베토벤과 주변의 이상한 ‘놈’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베토벤은 영웅이라고 믿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소재로 <영웅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 것에 실망해 나중에는 악보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렸다. 비록 베토벤이 염두에 둔 영웅은 그에게 실망을 안겨 줬지만, 베토벤 자신은 ‘음악의 성자(樂聖)’로 불릴 만큼 예술의 역사에 있어 나폴레옹 보다 더 위대한 ‘문화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청력 상실에도 굴하지 않고 주옥같은 음악을 남긴 베토벤에게 이 같은 칭호는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 베토벤은 살아있을 당시 이미 영웅이었고, 멜첼과 같은 많은 사람이 그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쾨른 부근에 있는 본에서 태어났다.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4살밖에 안 된 베토벤에게 클라비코드 연습을 혹독하게 시켰다. 베토벤을 모차르트와 같은 신동으로 홍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베토벤은 음악과 거리가 멀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차르트를 비롯한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아노 비르투오소(virtuoso)가 된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이 오늘날 위대한 작곡가로 남게 된 것은 청력을 잃어버려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창 물이 오른 이 십대의 베토벤에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음악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력 상실 앞에서 베토벤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생각하는 등 많은 방황을 했지만 결국 자

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

기로 결심한다. 덕분에 <운명 교향곡>

같이 클래식의 대명사가 될 만큼 훌륭한 곡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음악사에 흐름을 바꿔놓는다.

베토벤이 어린 시절 사용했던 악기는 피아노의 전신인 클라비코드였다. 1709년 이탈리아의 건반악기 제작자 크리스토포리가 발명한 피아노는 클라비코드와 하프시코드가 음량이 부족하고 음정이 불안정했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악기였다. 하지만 피아니스트인 베토벤이 보기엔 피아노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그래서 제조업자인 발명가들에게 다양한 주문을 했다. 산업혁명 이후 금속 기계공학의 발달 덕분에 피아노의 프레임을 나무에서 쇠로 바꾸고 강철선을 사용하는 등 발명가들은 베토벤의 의견을 피아노 제조에 반영할 수 있었다. 덕분에 피아노는 음량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한 악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베토벤은 성능이 향상된 피아노에 걸맞은 다양한 곡을 작곡하여 피아노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을 받은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자였다. 또한, 청력을 상실

하면서 감정표현이 더욱 섬세해져 낭만주의 음악이 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한다. 베토벤은 살아있을 때 이미 유명한 작곡가로 출판사들은 그의 곡을 받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베토벤은 선배들과 달리 후원자들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작곡가였다. 베토벤은 지휘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연주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곡의 빠르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베토벤 이전에도 곡의 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음악가가 고민했다. 같은 곡일지라도 빠르기를 달리하면 곡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프레스토나 알레그로 같은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자에 따라 연주한 곡의 길이는 제각각이었다. 맥박이나 진자 등으로 박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편했다. 물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해리슨의 크로노미터를 사용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문제는 크로노미터를 개량해 만든 정밀한 박자 측정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음악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었다.

널리 활용된 최초의 박자기는 멜첼(Johann Nepomuk Maelzel)이 만든 메트로놈(Metronome)이었다. 원래 네덜란드의 빈켈(Dietrich Nikolaus Winkel)이 발명한 것이었는데, 멜첼은 이를 개량해 메트로놈 이름으로 내놓은 것이다. 멜첼의 메트로놈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베토벤의 역할을 커다. 곡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고민하던 베토벤은 메트로놈이 마음에 들어 악보에 ‘멜첼의 메트로놈(Maelzel's metronome)’라는 뜻으로 ‘M.M.=60’과 같이 빠

르기 표시를 했다. 멜첼은 베토벤의 후광 덕분에 자신의 발명품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메트로놈을 이용하면 작곡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지휘자에게 전해질 수 있었지만 일부 지휘자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자신과 관객의 감정에 따라 곡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베토벤도 기분에 따라 자신의 곡 빠르기를 다르게 표시하면서 메트로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멜첼의 메트로놈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베토벤의 선택을 받은 덕분에 음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멜첼은 1805년에는 오르골과 비슷한 ‘기계장치 오케스트라’ 판하르모니콘(Panharmonicon)을 만들었다. 그리고 돈이 궁했던 베토벤에게 판하르모니콘을 위해 <웰링턴의 승리>(1813)라는 곡을 만들도록 부추겼다. 이처럼 기계 공학에 소질이 있는 발명가였던 멜첼은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기계장치(그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를 이용해 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체스 두는 기계장치를 처음 본 사람들은 오늘날 알파고(AlphaGo)보다 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기계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인공지능과 바둑이 전혀 협업을 하듯 위대한 베토벤 주위에도 그와 친분관계를 쌓고 싶어 했던 멜첼과 같은 발명가들이 있었다. TTA

